



신실한 반대의 유산 A Legacy of Faithful Dissent

크리스틴 홍 Christine Hong

올해 우리는 종교개혁 500 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길고 찬란한 역사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장로교인들에게 항상 있는 믿음의 실천으로서 신실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500 년 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인은 정의의 추구와 기독교 신앙의 근원으로부터의 증언입니다.

반대는 비평의 한 형태입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가야트리 스파이백 ^{Gayatri Spivak} 교수는 비판과 반대의 행위를 내부자의 일로 묘사하면서 "단지 파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건설적입니다. . . . 당신은 실제로 내부에서 말합니다. . . '당신은 사랑하는 것만 해체 할 수 있습니다'. . . 그것을 돌려 놓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모델은 보편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 반영, 자기 성찰, 자백, 그리고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있는 불의에 대한 집단적 노력을 통해 기독교 전통의 구성원으로서 용감하고 충실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미국장로교회에서 특권을 가진 사람들, 특히 백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도전은 그들이 공의를 향해 노동의 분담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 들과의 중요한 대화에 참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해체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해체 시키는 작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실한 반대 이념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설명

장로교인들은 스코틀랜드에서 개발된 "반대 ^{Dissent}"라는 단어의 사용법과 어원을 알고 놀랄 수 있습니다. 사실, "반대"는 장로교 신학과 정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 단순히 동의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거부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대"는 "동의하지 않기"입니다. 예를 들어, 바르멘 ^{Barmen} 의 신학선언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하나의 신념이 거부되고 또 하나의 헌신적인 신념이 표명됩니다.

¹ "Critical Intimacy: An Interview with Gayatri Chakravorty Spivak," by Steve Paulson, *Los Angeles Review of Books*, July 26, 2017,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critical-intimacy-interview-gayatri-chakravorty-spivak/>.

신실한 반대의 개혁 유산은 최근 벨하 신앙고백에서 표현되었습니다. 반대의견은 먼저 성경에 기초하여 신앙고백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교리가 거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온 인류 가족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교통하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화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명백히 나타나야 한다.
- 그러므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자 의무이다. 연합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정으로 추구되고 찾아져야 하는 실체이기도 하다;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세움을 입어야 한다.
- 이 연합은 사람들과 집단 간의 분리와 증오와 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죄라는 것과, 따라서 이러한 연합을 해치는 어떠한 것도 교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명백히 보여져야 한다;
-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경청하고, 실천하고, 함께 공동체를 추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 줄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을 공유하고, 한 번의 부름을 갖고,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며, 한 번의 세례로 세례를 받고, 한 잔을 마시며, 한 떡을 떼고, 하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한 분의 주님께 순종하며, 한 가지 일을 하며, 한 가지 희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 함께 그리스도의 위상, 새로운 인성에 이르게 된다. 서로의 짐을 알고 함께 짊어지며,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필요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훈계하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서로 고난을 받는다. 함께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 단결을 위협하거나 방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함께 싸우며;
- 이 연합은 자유에서만 확립 될 수 있으며 제약 조건 하에서 성립 될 수 없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뿐 아니라 영적 은사, 기회, 배경, 신념의 다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 하나님의 가시적인 사람들 안에서의 상호 봉사과 풍요로움을 위한 기회가 된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은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리들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

- 자연적인 다양성이나 사람들 사이의 최악 된 분열을 절대화 함으로 교회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연합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며, 또는 교회분열을 조장하는 교리;
-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상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화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줄로 이러한 영적 연합이 유지되고 있다고 고백하는 교리;
- 참으로 귀중한 선물인 이 가시적 연합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
- 명백하게 또는 은연중이라도, 출신이나 다른 어떠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요소가 교회의 성도 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리.

여기서 우리는 *소수화* *minoritization* 의 이슈에 관해서 신실한 반대에 대한 교회 전체에 걸친 신학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유색인종, 장애인, 및 LGBTQIA 공동체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집단을 소외시키는 경험을 위해 사용하는 단어를 말합니다.² 위에서

² Minoritization is a way to describe the experiences of people and groups who have often fallen under the demographic term “minority.” The term minority is no longer one of numerical significance, but of implied social and cultural marginalization by the dominant culture.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은 어떤 교리라도 거부한다...참으로 귀중한 선물인 이 가시적 연합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 묘사된 단결된 일치는 비슷한 것들의 일치가 아니라 많은 차이와 특수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교단 내의 소수 목소리는 장로교인들에게 벨하 신앙고백서에 정의된 이 단결을 공동의 목적으로 만들기를 요구함과 같습니다. "이 연합은 사람들과 집단 간의 분리와 증오와 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죄라는 것과, 따라서 이러한 연합을 해치는 어떠한 것도 교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명백히 보여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연합은 다양한 방식들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함께 공동체를 추구하며,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 줄 의무가 있다."

이처럼 역사와 정의로 드러난 변화들은 특히 여성, 유색인종, LGBTQIA 사람들, 장애인, 및 모든 교차로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와 정체성에 속한 신실한 기독교 반대자들의 앞장선 노동으로 발생합니다. 소수화 된 사람들은 개혁을 꺼려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개혁과 변화와 해방을 위해 성공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대화에서 종종 우리의 삶에 큰 위기와 위험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고통스런 예로서 흑인으로 운전하기, 흑인으로 걷기, 흑인으로 숨 쉬기 등은 위험한 일들이지만, 흑인 운동가들은 시민의 권리와 형평성에 대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그들의 몸을 사용하며 목소리를 들려줌을 계속 유지하기를 매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삶이 불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정의의 역사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인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의미 있게 위험한 투쟁에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미국장로교회는 개혁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교단 단체로서의 신실한 반대의견 표명은 오늘날 중요한 변화를 가진 사람들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필요한 변화를 키우고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신실한 반대의견 표명은 유색인종이나 퀴어들이 그들을 드러나게 억압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해왔고 여전히 하고있는 수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눈물과 절망, 분노의 노동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의 백인 장로교인 형제자매들, 즉 아직 투쟁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또한 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 앞에 놓인 기독교 연대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비슷하고, 당신과 같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저의 인종적 배경 때문에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힘든 사역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속한 커뮤니티 사람들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도 저는 여전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변화는 긴장의 도가니, 정의의 사업이 공유될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의 500년 개혁 역사는 깊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교단으로서 이전에 잘못을 하였으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은 종종 화해를 향한 과속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 잡는 일과 함께 모든 이들의 해방을 위한 대안적 방법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혁 사업은 결코 왕국의

이면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반란, 반 아시아, 반 이민자, 지금은 반 무슬림 정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종주의의 신학적 및 문화적 정당성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³ 보다 현대적인 개혁에서, 우리는 여성과 LGBTQIA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수 받은 사역에 인식하고 존중하며 많은 이웃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나란히 서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개혁 정신과 오늘날 우리가 함께 시도하는 지속적인 개혁은 건설적인 비판, 충실한 의견의 내적 및 외적 추구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해 신실한 반대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판을 환영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하여야 합니다. 국가 정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도 솔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적 비평에 마음과 정신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억압이 나타나는 반대 의견속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를 화해시킬 필요없이 차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포용하는 새롭게 단장된 기독교 공동체의 개혁과 재건의 협력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의와 개혁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해방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차이를 관찰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그룹을 소규모로 만들기 위해 언어와 법률을 통해 특권이 작용하는 방식을 분해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Y'all Means All

제가 처음 켄터키의 루이빌 ^{Louisville} 로 이사했을 때 자동차의 범퍼 스티커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모두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안으로서 후 식민주의 여성 신학자이자 2011년 미국종교학회(AAR) 회장인 Kwok Pui Lan 은 "Empire and the Study of Religion"이라는 제목의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면서 각자의 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전합니다.⁴

범퍼 스티커와 Kwok 의 진술은 서로에게 메아리칩니다. 개혁은 특히 사회적, 문화적, 신학적 변화와 같은 모든 과정과 결과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한 실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밀리 공포에 빠뜨리는 것에서 차이를 만들어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갖는 것과 동일한 것을 위해 싸우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야 할 때가 훨씬 매력적이고 편안합니다. 특히 백인 특권을 가진 교회의 경우, 이것은 상호 해방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보다는 지배적인 백인 문화로의 동화가 가능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편한 백인 기독교인들과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⁵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³ Anti-Muslim sentiment or bigotry is now being analyzed and discussed as a racialized phenomenon and experience. This means that anyone who appears Muslim or fits a phenotype that is reminiscent of what someone would consider "Muslim" can be the victim of anti-Muslim sentiment. After 9/11, hate crimes against Arabs and Muslim-appearing people rose 1700% in 2001 per <http://news.bbc.co.uk/2/hi/americas/3154170.stm>. For instance, the first person murdered because of a racialized hate post after 9/11 was a Sikh-American named Balbir Singh Sodhi, who was targeted because of his turban (see: https://en.wikipedia.org/wiki/Murder_of_Balbir_Singh_Sodhi).

⁴ Paraphrased from Kwok Pui Lan's presidential address at the 2011 AAR Annual Meeting on November 19, 2011, <https://www.aarweb.org/programs-services/a19-404-presidential-address-kwok-pui-lan>

⁵ Voters self-identifying as white evangelical Christians overwhelmingly voted for Donald Trump despite Trump's racist, anti-Muslim, and anti-immigrant rhetoric, and despite his noted history of sexual assault against women (see: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acts-of-faith/wp/2016/11/09/exit-polls-show-white-evangelicals-voted-overwhelmingly-for-donald-trump/?utm>).

것은 반 인종차별 주의자가 되고 환영 받는 교단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목사입니다. 저에게 신실한 반대의견은 많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한인 이민 회중의 맥락에서 여성의 성직 수락과 공정한 여성 임금 지불을 위해 계속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 사회 조직의 일반적인 지혜는 정의와 형평성 추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한 이해 관계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각자의 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변화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력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과의 어려운 대화에 참여하고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충실한 반대는 우리가 몸 안에서 추구하는 사랑의 행동의 한 형태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신학적 반대론 Theological Dissent

우리 장로교인들은 종교개혁 시대를 집단 종교 역사의 전환점으로 인용합니다. 그 견고한 신학적 전통에 대한 신실함은 우리의 신실한 신학적 견해를 강건한 신학으로 포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적이고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신학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 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해방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에서 왜 불의에 빠지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개혁 정신은 책임 있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인들은 수세기 동안 청지기 직분에 관해 서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서로에게 십일조와 헌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았습니다. 재정적인 청지기직에 관하여 더 깊은 대화와 해결책으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 놓는 질문들은 정의를 위한 청지기에 관한 더 깊은 대화와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견과 영적 및 종교 생활을 구현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적 개혁 전략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압도적인 수용을 강요하기 위해 그들을 지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공동체가 진정한 힘을 찾는 다양성의 차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혁되고 항상 개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의 뉴스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여 주고 "우리의 모든 마음, 정신, 영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와 같이 사랑함"을 거부하는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서로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처럼 서로에게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 일부는 처음에는 보았던 것을 이제는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흑인과 백인의 비인간화와 살인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 땅과 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백인과 그리스도교의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깊은 조직적 인종 차별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평등이나 정의가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의 안전, 편안함, 및 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변화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불의와 불평등에 대해 신실하게 반대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그들 자신들을 위해 싸우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혁신학은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서 그들을 잘라 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개혁되고 항상 개혁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문을 열어 놓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장로교회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기 힘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 창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양육을 목적으로 참을성 있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후속 조치: 참여하는 신실한 반대 Follow-Through: Participatory Faithful Dissent

신실한 반대 의견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전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로교회 그리스도인 들로서, 우리 각자는 개혁 신학자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자기 만족으로 부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은혜로 강화된 충실한 의견 표명은 우리가 변화에 참여하기 위해 나타나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즉,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더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비용으로 심오하고 중요한 행동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해방을 받아들이도록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양성과 포용의 상징적 형태에서 멈추지 않는 변화를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환영과 대표적인 다양성 및 포용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특히 유색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말은 기껏해야 공허한 약속이 되고 최악의 경우는 그들에게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 말, 생각을 사용하여 "보세요, 우리는 인종차별 주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도록 기관들의 토크 상징으로만 받아 들여진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 들여지겠지만 결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통 식탁에 초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변화에 참여하려고 시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식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 일부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백인 미국인들에게 더 "친숙하고" 더 "서구적인" 이름 ^{Name} 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인종 및 민족적 유산을 서로 공유하기에 문화 간 비슷하다고 혹은 똑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상처에 모욕이라는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는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웃어 넘기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우리는 선의의 인종 차별주의로 인해 지배적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들은 우리가 다양성의 명분을 위해 여기에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기관들이 포괄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함을 종종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소수화된 사람들은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즉, 받아 들여지고 보일 수 있는 자신의 특수성을 숨기거나 지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배적인 문화를 탐색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개인적 외상과 고통을 반복적으로 물어옵니다.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백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문화, 언어, 복장, 음식 및 신학적 시각을 숨기(삭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포함시키는 법을 배우기 위해 교회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반 인종주의와 문화적 민감성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제도적으로나 교단의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 정의된 "다양성과 포용"은 선의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캐치 프레이즈 뒤에 숨겨진 생각은 결론적으로 소수 민족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도둑질 하였으며, 우리의 고통을 본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적인 해방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소외되고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는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인 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은 정의의 일부이며 하나의 꾸러미 ^{parcel}입니다. 우리가 결합된 개혁의 노력을 고려할 때, 우리가 기꺼이 개혁할 것이 무엇이고 결코 식탁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정의가 그저 단지 사상이라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약속은 행동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동작을 통해 따라야 하는지 아닌지 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해방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례의 적합성 *Conformity* 에 대한 신실한 반대와 저항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적합성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함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반대 의견의 한 형태가 세례식에 쓰여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당신은 죄의 길에서 돌아 서고
세상에서 악과 그 권력을 포기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을 버리겠습니다.⁶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악을 포기할 때 세례 서약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개혁 도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예식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이름)을 지켜 주옵소서.
지혜와 이해의 영을,
자문과 힘의 정신을,
주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정신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영을 그에게 주옵소서,
지금과 영원히. 아멘....

너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⁶ *Glory to God*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16.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멘.**⁷

세례는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적합성 *Conformity* 은 서약과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힘을 포기합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공통적이고 공유된 세례에 대한 기대는 종종 일치합니다. 공동체 세례가 적합성일 때, 공동체는 소수 민족의 인격과 자기 결정을 약화 시키거나 심지어 억압하는 행동에 참여합니다. 지배적인 문화는 지배합니다: 언약의 세례 문화 이외의 것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충실히 반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개혁하고 환대하는 공간에서 일어났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 에세이의 시작 부분에서 설명하는 관행과 반대 의견의 일부는 적합성보다는 중요한 자체 검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 세례로써 부름 받았습니. 여기에는 사람들의 특수성에 대한 강제적인 숨김(소거)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편견(집단적 및 개인적)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민자들과 유색인종들이 신학에서 충분히 진보적이라고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무시해 버리는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문화적, 신학적 내러티브가 더 자유주의적이고 지배적인 집단의 문화적 및 신학적 내러티브와 일치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유색인종 회중에서는 동성애자와 여성에 대한 안수 사역과 급진적인 포용 및 가시성이 여전히 싸움의 대상으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미 소수 집단화 된 사람들 전체를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침묵은 정의를 위해서 신실한 반대의 함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언약적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공간과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급진적인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날을 고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이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고 세상을 함께 개혁하며 몸과 마음을 신실한 반대의 방식으로 참여시킵니다.

결론

오래 지속되는 변화는 우리가 누구 인가를 중심으로 성취됩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과 공동체에서 핵심 도덕적 나침반의 일부가 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적인 정의의 브랜드가 아닌, 공동체에서 세례의 언약 공동체에서 책임지고 공유될 때입니다. 그것은 공동의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과 헌신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비판과 충실한 의견 표명을 보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것이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더 가치 있는 방법으로 나의 비판과 인종 차별 경험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작업이고 우리는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존중하며 정의를 향한 이 노동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화적 특수성을 지워버리는 위험한 일치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신실한 반대는 신실한 사랑과 우리 신실한 세례의 결과입니다.

⁷ *Glory to God*, 18–19.

신실한 반대의 유산 A Legacy of Faithful Dissent

대화를 시작하며: 대화 질문들 Conversations starters: Discussion Questions

미셸 바텔 Michelle Bartel

1. 우리 장로교인들은 종종 세례에 관해 그리스도 제자도 삶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2. 우리의 세례는 화합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화합과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 하시겠습니까? 우리 세례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3. 벨하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선물이자 의무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것은 구속력을 지니면서 동시에 진지하게 추구되고 찾아야만 하는 현실, 즉 하나님 백성이 지속적으로 성취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치는 그리스도인의 진리입니다. 화합은 미국장로교회의 다양성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4. 크리스틴 훙은 우리에게 "소수화 Minoritization"라는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이웃, 회중, 또는 노회에서 어떤 면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백인들에게 소외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5. 벨하 신앙고백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중한 선물인 이 가시적 연합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를 거부한다고 고백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진지하게 단합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6. 훙은 우리 모두가 존경심을 표하는 한편,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는 기대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부릅니다. 이는 백인들에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백인이라면 인종 차별주의와 투쟁하는 백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온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변화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7. 신실한 반대 의견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믿지 않는지를 분명히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개혁주의 신자가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의 중요함은 무엇입니까?